

캐나다 메모리얼 대학 그린펠 캠퍼스 체험수기

김유정

당연한 얘기지만 오로지 영어로만 수업하고 영어로만 대화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마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영어 회화가 많이 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일단 내뱉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신경쓰거나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제가 말하는 영어 문장과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느라 해야 할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제가 어떻게 내뱉더라도 다 알아듣는 것을 보고 '그래 일단 영어로 내뱉자'라며 말이 되는 표현이던 아니던 영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아는 단어들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영어 회화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수강하는 ESL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과 퀘벡에서 온 EXPLORE 학생들과 함께 오전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ESL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과 Writing Group, Public Speaking, Study Group 시간을 가졌고 일주일에 2~3번씩 EXPLORE 학생들과 Culture Activity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어떤 질문이던 간에 스스럼없이 질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도 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기회를 무조건 붙잡으려고 했고 일단 내뱉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 모두 Speaking 시간이 있어서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Speaking 시간 외에도 Reading&Writing 시간이나 문법 시간에도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들은 모든 수업과 모든 경험들이 유익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Discussion 시간이 처음에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지는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것이 초반에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때는 정해진 답에 대해 영어로 읽는 느낌이 강했다면 Discussion 시간에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글 단어들과 문장들을 제가 아는 영어 단어와 표현들로 만들어내서 말해야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퀘벡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수업시간 외에 영어로 대화할 기회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사는 곳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직접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고추장 등 한국 양념이나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재료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어서 퀘벡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해줄 수 있었습니다. 딱

볶이부터 시작해서 김치전, 비빔밥, 잡채, 불고기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해줄 수 있어 좋았고 친구들도 정말 좋아해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은 저한테 캐나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간식 혹은 서브웨이나 맥도날드처럼 한국에도 있지만 메뉴가 다른 음식들을 접하게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어로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본 것도 처음이었고, 혼자 해외에 나가본 것도 처음이었고, 이외에도 수많은 경험들이 처음해 본 것들 투성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의 시야가 한 층 넓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이 계속 나간다는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여유로움과 좀 더 사람 친화적인 문화가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만 있을 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이로 인해 제 생각의 깊이나 범위도 달라지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나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고민없이 그 기회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추천해줄만큼 유익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